

중앙일보 '97. 6. 11.

## 희귀 야생동물 잡으면 내년부터 최고 7년



내년부터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10일 희귀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있는 자연환경보전법의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종으로 지정된 동물을 총기류·포약·덫·울무·그물·사냥개 등으로 포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반달곰 등 밀렵이 성행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종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외 함께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종을 잡기 위해 덫을 설치하거나 가공·유통·국외반출을 한 경우와 시·도에서 정한 보호야생종을 포획·채집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내에서 숫자가 감소하는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동물에 대

해서는 시·도관리아생종이나 상징종으로 지정,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화일보 '97. 6. 28.

## 서울 하천 다시 맑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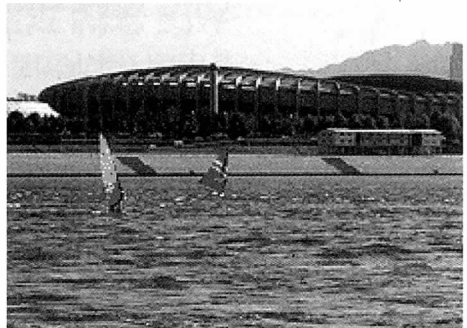
홍제천 등 물고기 살 정도로 수질향상  
중랑천 등 둔치에 시민공원 조성키로

각종 폐수와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시내 하천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9개 하천주변 둔치에 자전거도로, 축구장 등 여의도 크기(90만평)의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내 불량 하수관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이들 하천의 수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여름에도 문을 닫고 살만큼 심한 악취 때문에 악명이 높았던 중랑천의 경우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수치가 93년 최고 24.3PPM이던 것이 지난해 최저 8.5PPM으로 낮아졌고 안양천도 27.7PPM에서 14.6PPM으로 크게 개선됐다.

또 생활하수로 오염된 대표적인 경우인 홍제천 역시 '홍제천 살리



기 범국민 운동' 등의 노력으로 미나리를 심는가 하면 지난 3일 미꾸라지를 풀어놓는 등 수질이 좋아졌다.

이들 하천은 4~5급수 수준으로 아직 환경기준(3급수이하)에는 못미치지만 이제 물고기가 살고 악취가 거의 사라지는 등 시민과 당국의 노력에 따라 '먹감던 시절'의 가능성을 심어 주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중랑천·안양천 등 직할하천을 비롯, 양재천·우이천 등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 9곳을 단계별로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우선 98년까지 1단계공사를 마무리해 둔치 등을 조성해 '걸어다닐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가꿀 계획이다.

2단계로 오는 2007년까지 수질을 2급수로 끌어 올려 하천 어디에서나 '물놀이가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한강둔치처럼 보트놀이나 낚시를 할 수 있는 위락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겨레신문 '97. 6. 7

### 우포늪 생태계 보전된다

#### 원시적인 자연학습지로

국내 최대규모의 자연늪인 경남 창녕군 우포늪 일대가 우리나라에서 여덟번째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6일 창녕군 이방면과 유어면 일대에 걸쳐 있는 우포와 목포, 사지포, 쪽지벌 등 네개의 늪지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2백60만평을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불편과 불이익을 우려해 반발해온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지역주민에 한해 보전지역 안에서 영농·채취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건축물의 증·개축도 한 해 한 차례씩 허용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설득작업을 벌여 주민대표 3백 43명으로부터 보전지역 지정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곧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해 다음달 중으로 우포늪 일대를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뒤 보전방안을 마련해 이 일대를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자연학습지 및 생태관광지로 만들 계획이다.

우포늪 일대는 우리 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원시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된 가시연꽃과 생이가래, 부들 등 각종 희귀식물을 포함한 60여종의 식물, 중대백로, 왜가리, 큰고니 등 12종의 조류, 어류 29종, 수서곤충 37종, 무척추동물 14종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 식수원 오염물질 천적 발견

하수의 박테리아 195 ... 염화물질제거



식수원 오염의 최대 주범인 독성 염화물질의 천적 박테리아가 발견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코넬대 미생물학과 스티븐 진더 박사팀은 신종 박테리아 '195'를 하수 찌꺼기에서 발견해냈다고 과학전문 사이언스지 최근호에 발표했다.

이 미생물은 기존 4천여종 이상의 박테리아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트리클로로에틸렌, 4염화에틸렌 등 지하수까지 오염시킨 화학용제들의 독성을 말끔히 제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의 염화용제들은 드라이클리닝, 고무 및 페인트나 금속의 유지 제거, 각종 엔진이나 기계류 서척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수십년전부터 전 세계에서 무차별 방류돼 지하 수백m 암반까지 침투해 있는 실정이다.

진더박사팀은 10여년 연구끝에 “미생물 동물원”이라는 하수 찌꺼기 더미에서 '195'를 찾아냈다.

## 온실가스 억제에 무성의

유엔환경 정상회담

CO<sub>2</sub> 15% 감축 제의 거부

유럽등 “미온정책” 비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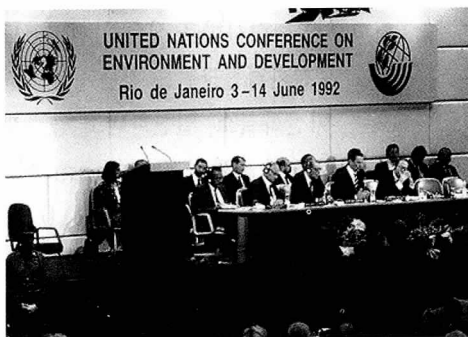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방출량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번 유엔환경정상회담에서 수량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개략적인 장기계획만 발표키로 했다.

티모시 워스 세계문제 담당 미 국무부 차관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26일 기조연설을 통해 30~50년의 장기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미국은 오는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지난 90년 수준보다 15% 낮추자는 유럽측의 제의를 이미 거절한데다가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이번 발표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워스 차관은 만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산업시대 이전의 2배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든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현재보다 70%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선진 산업



국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미온적인 환경정책 때문에 이번 환경 회의에서 제3세계 국가는 물론 일부 선진국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다.

유엔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2100년까지 해수면이 약 1m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일보 '97. 7. 1

### 오존경보제 실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서울에 이어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등 경기도 내 7개 도시에서 7월 1일부터 오존경보제가 실시된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측정되면 해당 시와 동사무소에서 동시에 경보를 내려 시민들의 외출 자제 등을 권고하게 된다. 경기도는 경보가 발령되면 각 동사무소는 옥상 등에 설치된 앰프를 통하여 이 사실을 곧바로 방송하고, 방송이 들리지 않는 곳은 자체 이동 차량으로 발령사항을 신속히 전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자동측정망을 통해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5개 항목을 측정하게 된다. 시간당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경우 오존주의보, 0.3ppm 이상일 경우 오존경보, 0.5ppm 이상일 경우 중대경보 등 3 단계로 오존경보가 발령된다.

매일신문 '97. 7. 4

## 멸종위기종 가시연꽃 발견

### 당음지에서 집단자생지 발견

멸종위기에 있는 『가시연꽃』이 경북 경산시(慶山市) 압량면 당음지에서 집단자생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대구자연생태연구소 조영호(식물생태학), 박정원(담수조류학) 박사팀은 전날 4만여평의 당음지 현장조사에서 꽃피기 직전 상태의



가시연꽃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가시연꽃은 환경부가 보호지정한 멸종위기 식물로 경남 창녕(昌寧) 우포늪과 충남 당진(唐津) 등 국내 일부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대구·경북지역에서 서식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가시연꽃은 연못에서 자라는 한해살이 물풀로 주름진 잎 표면에 가시가 있고 햇볕이 강한 7~8월에 1개의 꽃을 피운다. ●